

“잘 살기 위해 잘 죽는 법 배워요”



생각보다 '잘 죽는 것'은 간단치 않다. 제대로 살기 위해 잘 죽는 법을 배우는 것은 꼭 필요하다. 요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교육실에서 펼쳐지고 있는 '웰다잉 교육강사양성' 과정에도 그래서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교사회복지연구소 '웰다잉' 교육강사양성 프로그램

“어느 날 자다가 편안하게 눈 감았으면 좋겠어.”
 그 누구도 출생 환경을 선택할 수 없듯, 죽을 역시 자살을 제외하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잘 죽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소망이다.
 이미 이 곳 나 라 일 본 에 서 는 C.O.E.(Center Of Excellenc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정부지원을 받아 설립된 동경대 종교학과내 생사학연구소에서 죽음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사회 전반에서 '죽음'이 금기시 되던 분위기를 깨뜨리고 '제대로' 죽는 문제가 사람들에게 절실히 필요해졌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불교계에서도 '잘 죽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사회복지연구소에서 '죽음'에 관한 연구'를 하나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불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웰다잉(Well-dying)

교육강사양성 프로그램'을 내놓고 3월 3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즉, '죽음'이라는 개념을 체험과 지식 양면 모두에서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매주 2회 오후 7시부터 10주 동안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월요일에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산학협력력을 맺은 한림대 생사학연구소 오진탁 교수의 웰다잉 체험 교육으로, 수요일에는 사회·종교 학자를 비롯해 회향·장기기증·유산사회환원·호스피스 활동 등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인사들의 강연으로 이어진다.
 불교사회복지연구소에서 '죽음' 연구라니 좀 뜬금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삶과 종교는 분리될 수 없다. 그리고 복지는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게 살기 위해 충족돼야 할 모든 분야에 걸쳐 있는 영역이다. 정신적으로 모든 사람이 행복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불교의 궁극적 목표이자 복지의 최고점일 것이다. 행복한 삶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인간이 필연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문제도 진지하게 성찰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한 불자들이 많이 배양시켜 사회 속에서 제대로 작용하도록 돕는 역할도 반드시 필요하다. 불교사회복지연구소에서는 바로 이런 지점에서 '죽음'을 바라보며 웰다잉 교육강사를 양성하려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통했는지 프로그램에 대한 불교계 내 관심이 뜨겁다. 현재 강좌에는 사찰 스님 10여명과 재가불자 직장인 20명 등 총 30명이 등록했다. 원래 정원은 25명이었으니 '초과 달성'인 셈이다. 여기에 아직 시기도 확정되지 않았으나 벌써 '2기 회향'으로 등록하겠다는 전화 문의도 많다.
 지금까지 불교계에서 볼 수 없었던 '웰다잉'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새롭긴 해도 불자들에게 이렇게까지 '어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프로그램이 이 시대, 지금 현재 꼭 필요한 것일까. 그에 대한 비교적 적절한 답변(죽음이 무엇인

지 완벽히 알 도리는 없기에는) 4월 2일 펼쳐진 서울대 종교학과 정진홍 명예교수의 강의에서 들을 수 있었다.
 정 교수는 “잘 죽는 것과 잘 사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은 문제”라 잘라 말한다. ‘태어난 존재는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는다. 그것이 육체의 소멸에 불과할지라도.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자명한 명제에 대해서야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죽음은 경험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나오는 상관없는 타인의 죽음, 즉 거리가 먼 죽음으로부터 부모·배우자·자식의 죽음으로 ‘나’라는 개체로 한 없이 다가오는 가까운 죽음에 이르면 두려워지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이를 개념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죽음에 대한 올바른 가치 정립이 없으면 여기서 이미 힘들어집니다. ‘죽으면 다 끝인데’ 내지는 ‘어차피 죽을 것’이라는 식의 회의론적 생각이 빠져들기 쉽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되면 감정적으로 두렵고 원망스럽고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그렇다만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어떠한가. 정 교수는 “죽음을 외면하기보다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가끔씩은 인생의 길에서 멈춰 서 ‘나의 죽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갑작스런 죽음 문제 때문에 우리 삶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다.
 한편 불교사회복지연구소 임해영 실장은 이번 프로그램의 의미에 대해 “교육이 지식과 체험이 함께 이뤄지는 만큼 강사 본인이 철저히 변화하는 과정을 느끼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원래는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앞으로 배출되는 강사들을 적극 활용하면 사회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02)723-5101
 글·사진=김강진 기자(hkangj@buddhapia.com)



복지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어떤 이유나 수식어를 가져다 붙이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그저 이름답다. 그런데 불자들에게 봉사는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진다. 바로 '수행'의 연장선에 있는 '실천'이라는 점이다. 봉사가 깨달음에 이르는 수단이 아니라 내가 불자기 때문에, 불법(佛敎)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이다. 이런 심지를 갖고 봉사활동 단체 '목우재'를 이끌고 있는 김순자(가·사진)씨를 만나봤다.

“불자에게 봉사는 곧 수행”

18 목우재 회장 김순자씨



김씨는 교육계 공무원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그를 만나면 매우 '정확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복지는 자기 수행이 되는 상태에서 나오는 행동인 것 같아요. 복지 현장에서 뛰는 분들을 보면 더욱 그래요.”
 수행에서 복지, 복지에서 다시 수행으로 이동되는 그의 활동은 고요하고 평안하다. 그렇게 크게 소리 내지 않아도 복지단체를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로이 인식하게 된다.
 불자들은 '상(象) 낸다'는 말을 가장 경계한다.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김씨 역시도 그렇다. 인터뷰를 하면서도 구구절절 봉사활동 '자랑'을 하지 않으려 말을 아꼈다.
 하지만 김씨는 '목우재'와 회원들에 대해서만큼은 자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듯 했다.

는지 알려주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목우재 회원들과 함께 김씨는 5년 전부터 한 달에 한 번 서울노인복지센터 급식 봉사과 군법당 봉사 등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3년 전부터 다니기 시작한 문산 11·12연대 군법당 봉사는 목우재의 대표적 활동이다. 특히 12연대 활동을 통해 백성사, 충절사와 백학사 3군데 사찰 250여명의 군장병을 돌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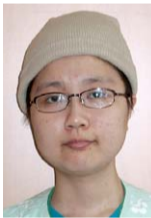
20명의 봉사자 모여 '목우재' 결성 노인복지센터·군법당 봉사 꾸준히

그는 2003년 20명의 봉사자들과 함께 목우재를 결성했다. 그것을 정회원 60명에 후원회원 20명까지 총 80명이 소속된 큰 단체로 성장시켰다. 비결이 뭐냐.
 목우재는 조금 특이한 단체다. 우선 모두 '도반'이라 부르지만 재직사찰은 각각 따로 있다. 즉, 사찰 조직이 아니라서 '개다가 참기름 도매 등의 수의 사업 구조까지 갖춘 탄탄한 복지조직임에도 사무실은 없다.
 “평소엔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요. 봉사활동 나올 때나 정기 산행 때 만나서 이야기하고 친목도 다집니다. 좋은 일 하자는 취지에서 만난 사람들이라 뜻만 맞으면 잘 통합니다.”
 허투루 만든 조직이라든 오랬동안 활동하지도, 회원 배가 운동 없이 동참 회원을 모으지도 못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 김 회장은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과 행동력이 갖춰진 사람이 똑같이 중요하다. 사실을 인식시키고 재정을 공개해 매달 회비가 어떻게 쓰이

를 보고 있다. 사실, 놀라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군법당 봉사가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먹성 좋은 장병들의 먹거리 준비에서부터 매일 아이디어를 짜내 장병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까지, 김씨는 늘 즐겁게 고민한다.
 봉사현장을 누비면서도 김씨가 결코 잊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다. 본래 자리인 '주부'라는 자리다. 자기가 처한 일부터 잘 해야 바깥일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이 김씨의 지론이다.
 취재하다 보니 또 하나 놀라운 점을 발견해 냈다. 김씨가 산수화 및 문양화 지명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도 수행이라 생각합니다. 연꽃을 그리며 문양화를 그리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제가 수행을 열심히 해서 나중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이 제대로 세상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는 더 정진을 공개해 매달 회비가 어떻게 쓰이

희귀난치병으로 소화기능 상실

생명나눔 선정 이달의 환우



“소원이 있어요. 한번이라도 배부르게 밥 먹어 봤으면 좋겠어요.”
 평소 소화기능이 약했던 이진영(25·사진)씨. 2007년 3월 어느 날 갑자기 음식물을 먹을 때마다 구역질, 구토와 함께 심한 복통이 생겼다. 음식을 삼키지 못하니 몇 개월 동안 영양제만 맞았다. 단 몇 달 사이에 47kg이던

체중은 18kg 감소했고, 병원에서는 병의 발생 원인이거나 치료법이 명확하지 않은 '희귀난치성질환'이라는 진단을 내릴 뿐이었다.
 지금도 진영씨의 상태는 그대로다. 영양실조는 갈수록 심해지고 영양제 주사와 소량의 유동식만으로 연

명한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식대에서 음식물을 내려 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동식이나 약물조차 조금만 삼켜도 소화시키지 못해 소화촉진을 위한 전기침 자극이 있어야 한다. 양약과 한약, 위 자극 전기침 치료 등을 2개월간 치료하고 나서야 체중이 33kg로 조금 늘었지만 진영씨는 현재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진 상태다.
 진영씨에게 닥친 더 큰 문제는 마땅히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진영씨가 7세 되던 해 부모님의 이혼으로 진영씨 남매는 조부모님 손에 맡겨졌고, 다시 고모댁에서 대부살이를 하게 됐다. 고모도 근근이 살아

가는 형편인데다 올해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진영씨의 남동생도 아직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2개월 동안 발생한 치료비가 340만원이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진영씨에게 앞으로 400-500만원의 치료비가 더 필요하지만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진다. 아직 젊은 나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나이의 진영씨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불자들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다.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 (예금주: 생명나눔) (02)734-8052
 김강진 기자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불제 대원기업



장엄용(법당) 전기초

- ▶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
- ▶ 그늘음과 납성분의 위험이 있는 일반초와는 달리 무공해임
- ▶ 시간 조절 가능



SMD LED전구 (국산정품)

구입문의 (031) 986-0277~8 / (02)2266-2634, 2263-2638 / 구입문의 (032) 582-6235~6 /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 (국산정품)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법당용, 외곽용
- 필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 (정품)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 3W, 5W, 10W
- 특 필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길이대

연등, 영가위패

연등 (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권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